

(auri)

한옥정책 BRIEF

No. 4

한옥마을의 입지와 구성

한 필 원

ATA 대표,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 치 후

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



www.hanokdb.kr

한옥정책브리프는 한옥정책과 관련된 지식, 문화, 산업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학술자료입니다.



한옥마을의 입지와 구성

1. 한옥마을의 개념

마을이라는 말은 집회를 뜻하는 ‘모을’ 혹은 ‘모들’에서 유래했다.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공간 단위를 예로부터 마을이라고 불려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옥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한옥마을과 관련되는 용어로 전통마을, 민속마을, 역사마을이 있다. 전통마을은 말 그대로 전근대시기에 조성된, 전통이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을 보통 민속마을이라 한다. 한편 역사가 오래된 마을을 의미하는 역사마을은 유네스코에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 사용되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마을은 공동체를 이룬 거주자들의 생활영역을 지칭한다.



그림1. 오목대에서 본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이라는 용어에는 다른 용어들과 달리 시간 개념이 없다. 그 대신 그것은 마을을 구성하는 한옥이라는 건축유형의 이름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용어 가운데서 한옥으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한옥마을 뿐이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 혹은 한옥마을의 보전이나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나타난 한옥마을의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 지방자치단체별 한옥마을 정의

구분	내용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 지원 조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전통한옥지구라 함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입지와 한옥마을의 특성

한옥마을의 입지는 주로 도시와의 관계로 구분된다. 그것은 도심 마을, 도시 변두리 마을, 전원 마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옥마을이 도심이나 변두리에 있을 경우 그 도시는 대개 오랜 역사를 가진 역사도시다. 서울, 춘천, 전주, 안동 같은 역사도시에는 도심부에 한옥마을이 잘 남아 있다. 대구에는 도심과 변두리에 모두 한옥마을들이 있고, 밀양의 변두리에는 한옥마을이 있다. 역사도시에서 한옥들은 단지형의 마을을 이루기도 하지만 가로를 따라 조성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3대 장으로 꼽히는 안성장이 섰던 안성 도심에는 여전히 가로를 따라 한옥 문간채가 줄지어 남아있다.

역사도시에 남아 있는 한옥은 대부분 20세기 전반이나 중반에 지어진 것들이다. 서울 북촌의 한옥은 주로 1930년대에,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안동 옥정동의 한옥들은 건축시기가 더 늦어 1970년대까지 지어졌다.



그림2. 안동 도심의 한옥마을



그림3. 문간채가 나란히 선 안성 도심의 가로

대부분의 한옥마을은 농촌지역에 있다. 전원의 한옥마을에는 전근대시기에 지어진 한옥들이 여전히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새로 조성한 한옥마을도 늘어나고 있다.

전근대기에 농촌지역에 조성된 한옥마을과 20세기에 도시에 조성된 한옥마을의 큰 차이는 마을의 공간구조에 있다. 전자는 마을공간이 자연의 지형에 순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성된 데 비해 후자에서는 마을공간이 대개 민간주택업자들에 의해 일시에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전자의 마을공간이 유기적인데 비해 후자는 좀 더 기하학적이다. 전자는 집을 배치할 때 안대(案帶)를 기준으로 하는 등 마을공간이 주변 자연경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풍수가 마을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었다. 이에 비해 후자에서는 마을공간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며 농촌에서 농업용 작업마당으로 쓰이는 바깥마당이 없이 인접 대지가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다. 대지 경계선이 건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안마당을 중심으로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해 건물을 구성했다.

전원의 한옥마을에서는 길의 체계, 필지 구성, 한옥의 규모와 격식 등이 위계적인 데 비해 도시의 한옥마을에서는 공간구성이 상대적으로 균질적이다. 전원에서는 여러 채로 구성되던 한옥이 도시에서는 문간채와 본채만으로 구성된다. 전자에서는 우물을 같이 사용하는 집들이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반(班)으로 묶이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비해, 후자에서는 주거지를 조직하는 막다른골목들 같이 사용하는 5집 안팎의 집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룬다. 전원에서든 도시에서든 한옥마을은 작은 공동체들이 결합된 영역이다. 어떤 한옥마을에서도 인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한옥마을의 현황 및 관련 사업

1) 한옥마을의 현황

아직 전국의 한옥마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한남대 ATA에서 국가 R&D 사업인 '한옥기술개발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한옥마을의 DB를 작성하고 있다. 각종 문헌에서 지역 별로 마을이름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자료를 참고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항공사진을 살펴서 한옥마을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한옥과 한옥마을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 20호 이상인 마을로 한옥(목가구구조에 기와나 초가를 이은 주택)이 마을 주택 수의 1/3 이상인 한옥마을은 56곳으로 파악되었다.

2) 한옥마을 관련 사업

현재 한옥마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한옥마을에 한옥을 신축하는 기존 한옥마을 정비형 사업과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지자체 중에서 특히 전남이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기존마을 정비형(2012년 1월 현재 78개소)이 전자, 신규단지형(2012년 1월 현재 12개소)이 후자에 해당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계획된 한옥마을 사업 각각 14, 22개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전라남도에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4. 오미마을의 현대한옥단지(전남 구례군 토지면)



그림5. 구림마을의 현대한옥단지(전남 영암군 군서면)

표2. 지자체가 추진 중인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 마을명	지역	마을 부지 면적(㎡)	한옥 수
서울	성북동 한옥마을	성북구 성북2동 성북 제2 주택개개발 정비구역	7만 4912	50여 가구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4만 2000	100여 가구
경기 인천	성균제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5만	280 가구
	광고신도시 전통한옥마을	수원시	5만 8878	100여 가구
	동탄한옥마을	화성시	13만 9838	300 가구
	인천 한옥마을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3만 1000	연면적 6만 7000㎡
전남	독일한옥마을	순천시 옥천동	20만	250 가구
	주포 한옥 전원마을	함평읍 석성리 주포마을 일대	5만 9330	50 가구
	행복마을 조성 사업	함평 해보·금덕	2만 3979	22 가구
		나주 다시·신광	2만 130	35 가구
		담양 창평·유천	2만 9755	31 가구
		광양 옥곡·묵백	2만 9522	22 가구
		강진 성전·월남	4만 2030	30 가구
		나주 노안·금안	2만 9940	33 가구
		화순 동면·대포	2만 1854	20 가구
		장흥 안양·수문	2만 1603	22 가구
		영암 학산·미교	2만 7240	21 가구
		무안 삼향·에뜨랑	6만 4198	32 가구
		진도 임회·남동	5만 9150	55 가구
		장성·황룡	12만 6398	110 가구
전북	익산배산지구	익산시 배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771	19 가구
충북	행정중심복합도시 한옥시범마을	세종시	2만 1625	50~60여 가구
경북	교촌한옥마을	경주시 교동	1만 4372	19 가구

4. 한옥마을의 조성 방향

서울의 북촌과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에 자극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의 도시에서 한옥마을이 경쟁적으로 정비 혹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세우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서 도시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은 이미 도시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입증되었으며 역사도시의 도심을 재생하고 도심 거주를 회복하는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2018년이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원에도 한옥마을이 많이 조성될 것이다. 전원의 한옥마을에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은퇴자들의 꿈이기 때문이다.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는 앞에서 말한 도심, 도시 변두리, 전원 등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 마을 정비 사업인지 신규 조성 사업인지에 따라 개념과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옥의 유형도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도 달리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전원에 조성되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전원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는 한옥은 물론 마을공간에 무장애 설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도시지역의 한옥마을에서는 한옥들이 대개 5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따라서 지구가 재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 춘천 소양동의 ‘기와골’은 이미 수년 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안동 옥정동에서는 한옥이 한 채씩 철거되어 점점 한옥마을의 특색을 잃고 평범한 도시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6. 춘천 소양동 기와골



그림7. 춘천 소양동 기와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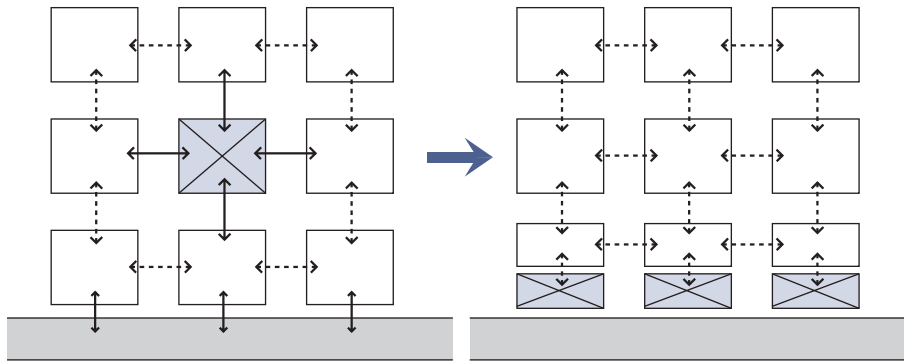


그림8. 한옥마을 용도배분 방식의 예(X 표시가 된 집이 상업 용도다.)

한옥마을에서는 개방적인 한옥의 특성 상 상업 용도를 중앙부보다 가로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존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한옥을 건축하고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도심에서 도시경관을 중시하는 사업일 경우 한옥마을을 단지형보다는 가로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도심 한옥마을에서는 한옥으로도 어느 정도의 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층 한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적인 건물인 밀도를 높임에 따라 대두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시의 한옥마을에서 하나의 한옥이 주거 용도를 잃고 상업 용도가 되면 그 주변의 한옥들이 연쇄적으로 비주거 용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한옥들이 주거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용도배분 계획을 면밀히 하여 상업시설 등 비주거 용도를 배치해야 한다.

새로운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기존의 한옥마을들이다. 좋은 선례에서 한옥과 마을공간이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는 방식, 공동체 영역을 구성하는 방식 등을 학습하면 새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직접적인 참고가 될 것이다.

높아진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옥의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가격 문제다. 앞으로 한옥의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마을의 수준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옥을 채 단위가 아니라 집단으로 공급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합산한 총 주거건축비를 대상으로 한옥의 가격을 논의하고 그 절감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TA 대표,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부연구위원 신치후

chihoo1@auri.re.kr